

수업으로



시작도이어...

마음튼튼 2반
2021.09.06~2021.10.29.

-100가지 줄놀이의 시작-

어린이들은 주위에 버려지고 아무에게도
관심 없는 물건들에게도 생명을 넣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특이한 재료를 보면
망설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하지요.
여름 물놀이가 끝난 마당
한 구석에 버려진 나일론 줄 뭉치와

바닥에 뒹구르는 밧줄을 들고

자신만의 놀이를 만들어내는 친구들~

마음튼튼 2반의 줄놀이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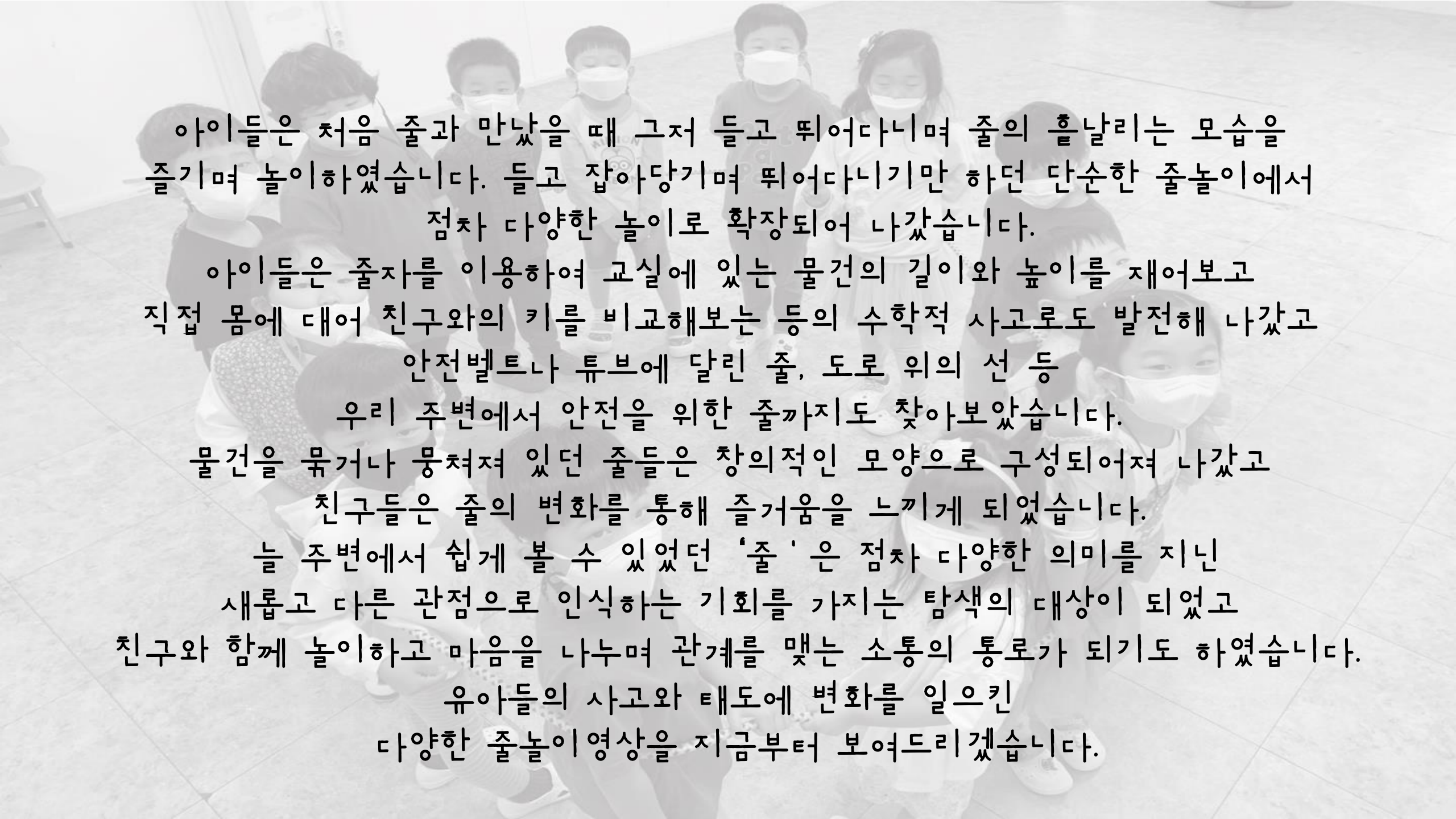


다양한 **줄**의 만남



교실 속 **즐**놀이





아이들은 처음 줄과 만났을 때 그저 들고 뛰어다니며 줄의 흔들리는 모습을 즐기며 놀이하셨습니다. 들고 잡아당기며 뛰어다니기만 하던 단순한 줄놀이에서 점차 다양한 놀이로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줄자를 이용하여 교실에 있는 물건의 길이와 높이를 재어보고 직접 몸에 대어 친구와의 키를 비교해보는 등의 수학적 사고로도 발전해 나갔고 안전벨트나 튜브에 달린 줄, 도로 위의 선 등 우리 주변에서 안전을 위한 줄까지도 찾아보았습니다.

물건을 묶거나 뭉쳐져 있던 줄들은 창의적인 모양으로 구성되어져 나갔고 친구들은 줄의 변화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줄'은 점차 다양한 의미를 지닌 새롭고 다른 관점으로 인식하는 기회를 가지는 탐색의 대상이 되었고 친구와 함께 놀이하고 마음을 나누며 관계를 맺는 소통의 통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유아들의 사고와 태도에 변화를 일으킨 다양한 줄놀이영상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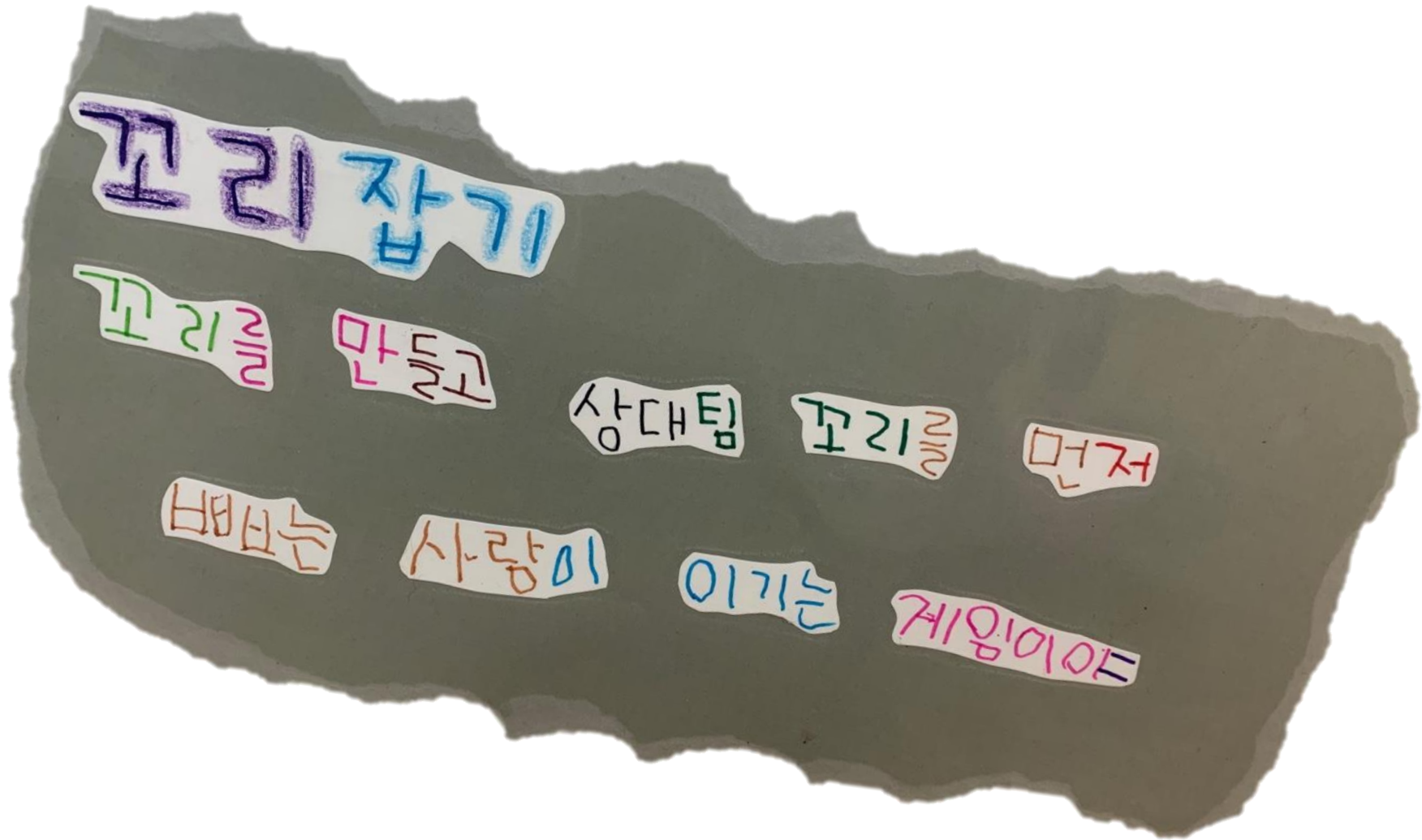


줄다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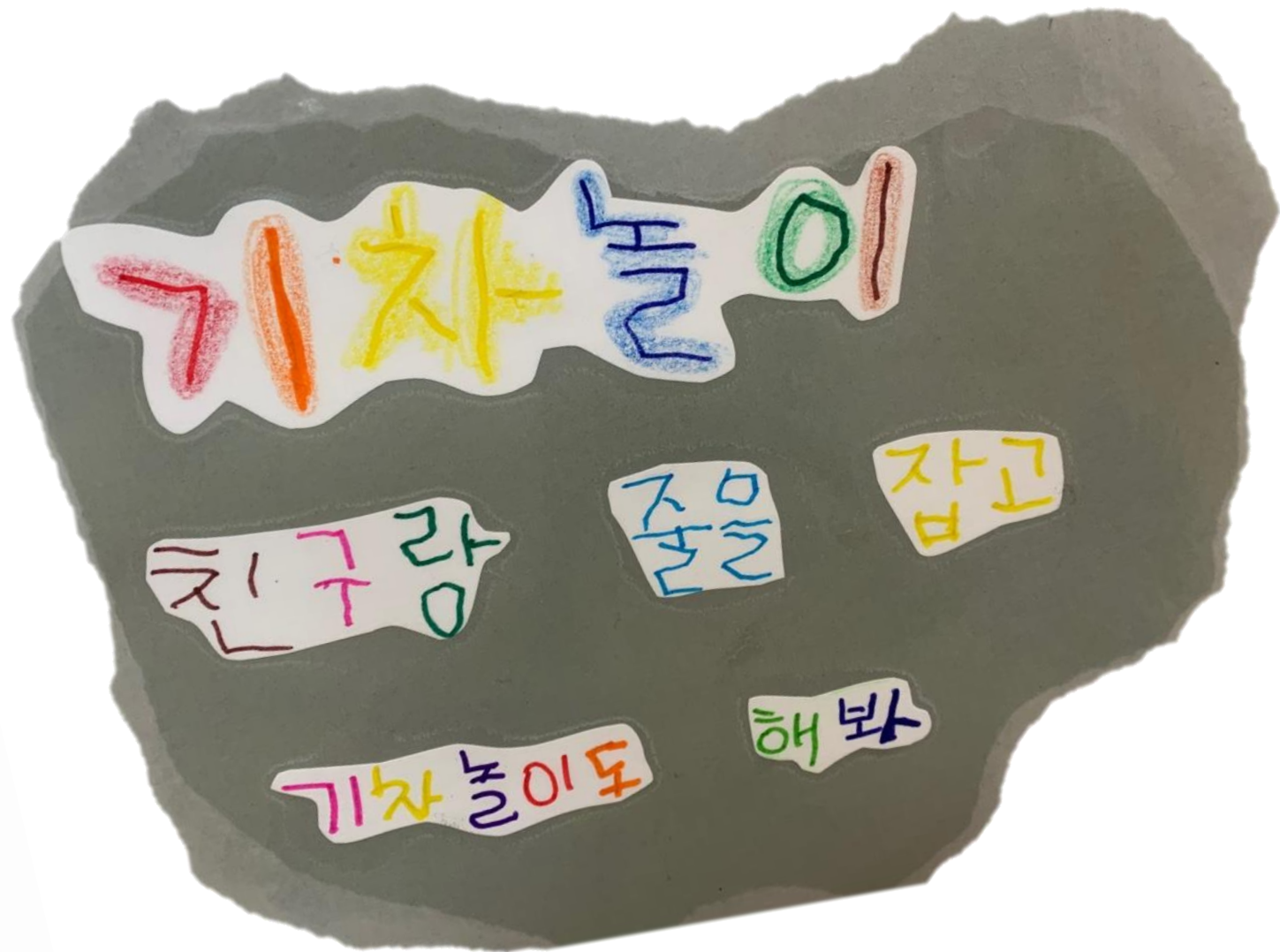
중간 단계를 가운데가 더 두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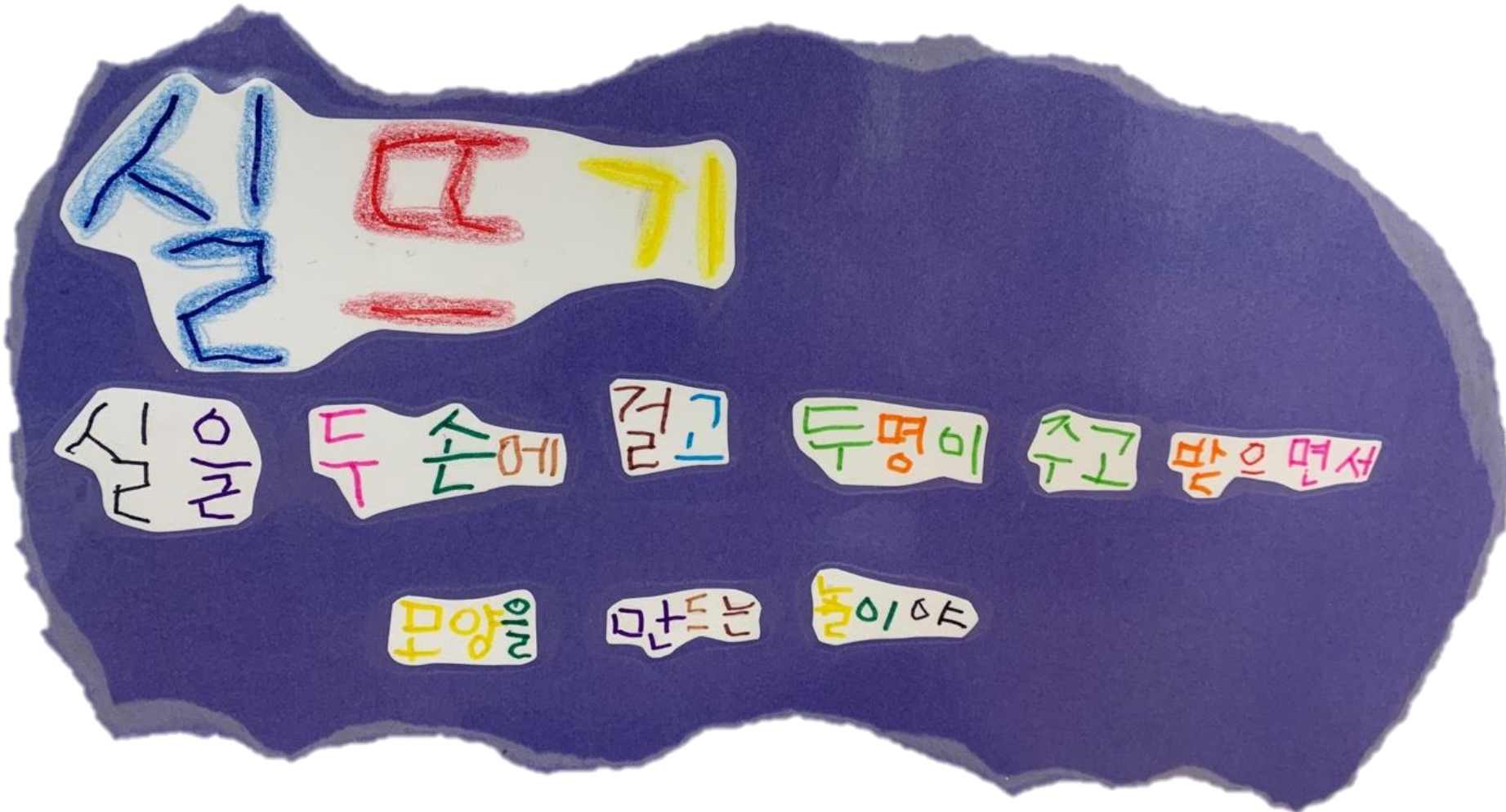
간 팀이 이기는 게임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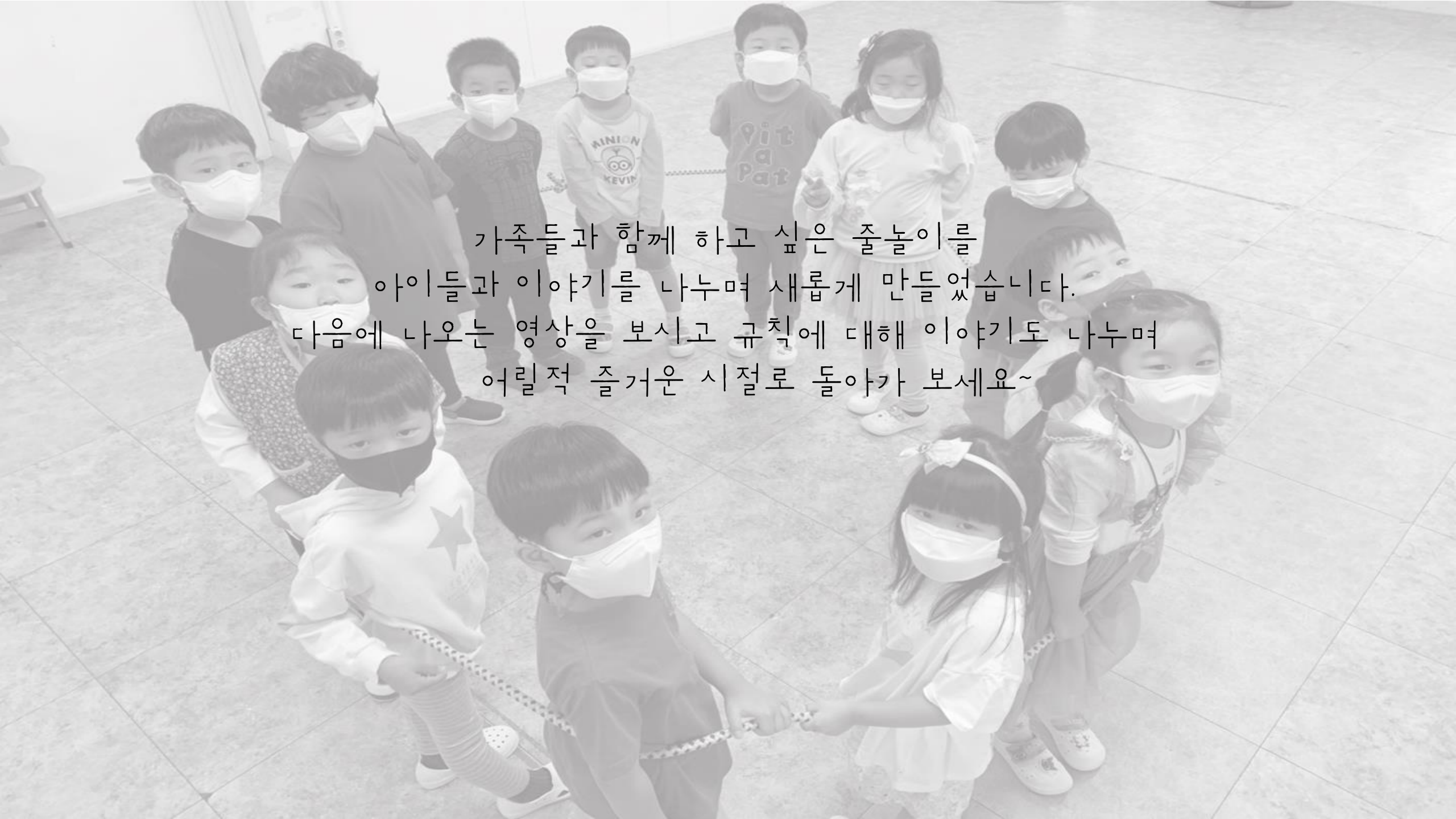


다른 반 친구


여러가지 줄놀이를 즐기던 마음튼튼2반은 바깥놀이터에서 만난 다른 반 친구들에게도 줄놀이를 소개해주고 이번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줄놀이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며 마음튼튼 2반 친구들의 새로운 줄놀이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들어볼까요?



다른 반 친구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group of approximately 15 children standing in a circle on a tiled floor. They are all wearing face masks and holding hands, suggesting a group activity or a circle time. The children are of various ages, likely preschool or kindergarten. The text is overlaid in the center of the image.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은 놀이를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영상을 보시고 규칙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며
어릴적 즐거운 시절로 돌아가 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즐**놀이

